

세월호 참사 100일

불교계 '아픔 치유' 나선다

오는 7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는 7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한다.

안산시불교연합회(회장 승현)는 태고종(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제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안산불교연합회장 승현스님,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추모사를 낭독하며, (사)나누우리 회원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린다.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세월호

7월 24일 서울·안산시 위령제 특별법 제정 위한 단식 이어가 향후 복지 대책 논의 세미나도 유가족 대표 "불교, 가장 도움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불교계는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미 정도회가 14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 서명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며, 조계종은 전국 교구 분말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월 14일부터 시작한 단식 시위에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16일부터 동참했다. 현재 노동위원 도철스님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김병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계종은 단식이 길어질 경우 중단 차원에서 여러 스님들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 복지 사업 등 실질적인 활동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3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본 불교계의 역할-중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점검'을 주제로 미래 복지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구자행 센터장이 자원봉사계에서 바라본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조계종단의 긴급재난구호 활동을 점검하며, 향후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복지사업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이 세월호 유가족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처를 보듬는

역할을 한 불교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기독교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명운동 요청에 제일 반응이 빨랐던 곳이 조계종이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자마자 국회 방문을 통한 정치권 협력 등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산의 한 교회 신도이기도 유 대변인은 법륜 스님의 정도회가 2주동안 140만 명을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법륜 스님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시간 듣고 의무적으로 따랐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유가족들은 숫자보다(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그들의 태도에 더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가족 대표의 평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회와의 소통'이 불교계의 진정성있는 행보로 점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금강산 사업 재개 여러곳에 도움 요청"

자승 스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접견자리서 언급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건서 현대아산 대표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금강산 관광사업) 끝까지 지켜준데 대해 현대아산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자승 스님은 "종교, 문화 등 민간교류는 핵, 정치, 경제논리와 분리해서 유연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질감 회복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아시아게임은 전후해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현정은 회장 역시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아진 데는 불교계 역할이 컸다"며 "남북 공동 광복절 법회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

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8·15 남북합동법회 추진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진 못했지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며 "그래서 '통일은 곧 공존'이어야 하고 '더불어 같이 살자'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통일의 씨앗이 싹트고 있으니 잘 지켜내라"고 격려했다.

현 회장은 "민간교류 만큼은 자유로이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조 대표는 "6.29 만해스님 남북 합동다례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다. 그러한 교류와 협력이 통일 과정이라고 본다"는 뜻을 전했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이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불교방송 3개 지역 중계소 허가 취득

진주·대관령·강릉 등 3개소

BBS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이 지난해 7월 인천중계소(88.1MHz)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양양 중계소(97.1MHz)에 이어 7월 2일 경상남도 진주지역(88.1MHz)과 8일 대관령지역(90.9MHz), 강릉 패방산지역(104.3MHz)도 중계소 허가를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구체적인 추가 가청 가구수는 경상남도 진주가 10만 3천가구, 강릉패방산과 대관령 중계소가 송출 가능한 강릉시, 동해시 일원, 평창군, 정선 일부지역의 13만 5천 가구이다.

불교방송은 오는 8월 1일부터 오전 7시 BBS TV뉴스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동시 방송하며 교계뉴스를 더욱 강화하고, 계속해서 라디오 난청지역의 중계소를 확대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세계 9점뿐인 고려 나전경함 '귀환'

국립중앙박물관, 15일 일반에 공개 불교 경전 보관용 제작 추정 모란당초 등 조각 2만5천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7월 15일(화) 고려시대 공예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보급 문화재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을 (사)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김정태)로부터 기증받아 공개했다.

경함(經函)이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합이다. 1231년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에서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대장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경함이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나전칠기(螺鈿漆器)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남아 있는 고려시대 나전칠기 경함은 전 세계적으로 9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나전대모불자(螺鈿代掃拂子) 한 점만이 전해져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려 나전경함은 일본에서도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 나전경함은 2013년부터 국립중앙박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급 문화재 고려 나전경함을 기증받아 7월 15일 공개했다.

물관회 콜렉션위원회에서 여러 번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공동 확인을 거쳐 구입 및 기증을 확정하게 되었다.

나전경함은 높이 22.6cm, 폭41.9×20.0cm의 크기로 무게는 2.53kg이며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인 고려 나전경함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함은 고려시대 불화에서도 발견된다. 이 나전경함은 장식하고 있는 주무늬는 모란당초무늬이며 부수적으로 마엽무늬, 귀감무늬, 연주무늬가 사용되었다.

기법상으로는 얇게 갈아낸 자개를 일일이 무늬대로 오려낸 줄음질 기법이 이용되었으며 마엽무늬와 귀감무늬는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표현하는 곱음질 기법도 보인다. 이와 함께 꽃이나 원형의 무늬 안쪽에 다시 선각(線刻)을 하여 세부를 표현하는 모조법(毛彫法)도 나타난다. 또한 나전 조각만 2만5천개 이상 붙여있다.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에 따른 무물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상설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화사 팔공산 승시, 범불교 행사로 확대

자체 봉행위 결성...대구 불교 화합도 다짐

매년 동화사가 주최하는 승시가 올해부터는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범불교계 행사로 진행된다. 이에 동화사는 승시 축제 봉행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동화사의 승시 축제는 장터 재현은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시연 등을 선보이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아왔다. 승시축제를 시민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동화사는 대구 시내로 행사 장소 이전을 추진중에 있다.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승시는 동화사의 대표 행사이지만 동화사가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교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내에서 행사를 주최하고자 한다. 현재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등을 축제 장소

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동화사는 제5회 팔공산승시축제를 위한 봉행위원회를 결성해 조직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봉행위원회 위원장은 주지 덕문 스님이 맡고, 공동집행위원장은는 전집행위원장 능도 스님과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 사무국장 영범 스님이 선임됐다.

승시는 10월 2일~6일 5일간 대구 동구 인근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범패, 발우공양,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덕문 스님은 "대구가 불교 중심 도시지만 요즘 지역 불교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내로 내려온 승시를 통해 흩어진 대구 불교가 하나 되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또 불교인들에게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우리 시대 왜 염불이 필요한가? 왜 염불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선화상인 염불 법문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

정원규·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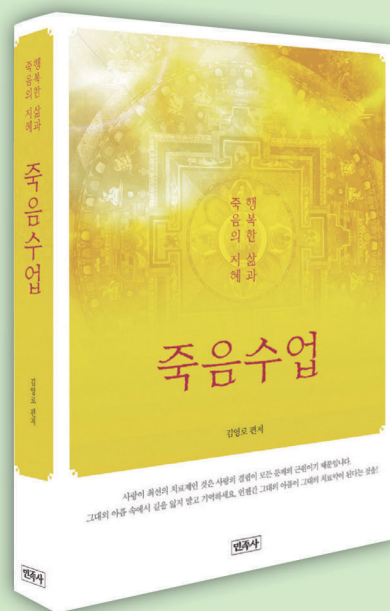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선화(宣化)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명한 책.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보다 건넌다는 이치임을 깨닫게 한다. 참되게 염불하면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남을 일깨워 준다.

"그대도 염불하고, 나도 염불하고, 그대나 나 무엇 때문에 염불하는가? 생각을 마치고자, 사바를 극락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지 그대도 없고 나도 없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물을 조용히 관하여 모든 것을 깨달으니, 번뇌는 끊어지고 무명은 깨지며, 거대한 사랑의 강물 삼계(三界)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계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한 저의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머리말 중에서